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거한 개혁주의 성경관 연구

김 상 훈

I. 성경의 필요성	IV. 성경의 역할
II. 성경의 범위와 영감성	V. 성경의 보존과 해석
III. 성경의 권위	VI. 결 론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조 제 1조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는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장 제 2항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¹⁾ 개혁주의의 입장에 있는 우리 '장로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단의 신앙적 입장으로 받아들였다.

1643년 7월 신학자 121명과 평신도 성경학자 30명으로 된 151명의 위원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약 5년에 걸쳐 완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장로교회에 청교도적 개혁주의의 성격을 띤 성경적인 교리로서 인정되어 장로교의 기본 교리로 채택되어 왔다.²⁾ 전문 33장

1) 박윤선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영음사, 1989, p. 211.

으로 되어 있는 이 고백서는 성경, 하나님, 창조와 섭리, 타락과 언약, 그리스도 등에 대한 교리적 내용과 함께 선행, 양심, 주일, 위정자, 결혼 등의 신자의 삶의 실천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고백서는 첫 장을 성경에 대한 장으로 할애한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입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성경과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그 이상의 신앙적 내용을 소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이하 '고백서')의 제 1장 성경관의 내용을 새롭게 정리, 해설하며 이와 관련된 신학적 입장을 개진하려 한다.³⁾

이 제 1장(성경)에는 모두 10 항목에 걸쳐 성경에 대한 개혁주의적 견해를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열가지의 내용은 그 자체로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들을 주제와 관련해서 크게 다섯 부분(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범위와 영감성, 성경의 권위, 성경의 역할, 성경의 보존과 해석 등)으로 묶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 성경의 필요성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 1항목이다. 고백서 제 1장 제 1항은 (1) 먼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자연계시에 대해 언급한다(참고, 롬 2:14-15; 1:19-20; 시 19:1-3; 롬 1:32; 2:1, 14-15; 행

2) *Ibid.*, p. 7.

3) 이 부분은 박윤선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신앙고백서 중 성경관을 다룬 제 1장의 전문(pp 11-16)을 참고하되, Morton H. Smuth의 *Harmony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and Catechisms*, Greenville Seminary Press, 1993, pp. 11-15의 고백서 영어본문과 비교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고백서의 성경관에 학문적인 비평을 가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다. 또한 단순히 해설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고백서의 관련 내용을 독자적으로 재분류하고 개념들을 보다 명료화하며, 연관 주제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며 보완적 설명을 함으로써 고백서가 가진 중요한 의미들을 새롭게 드러내며 그 신학적 사상을 적절히 지지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17:28). (2) 그러나 이 자연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과 그 뜻을 알게 하는데 충족하지 않다('not sufficient': 참고, 고전 1:21; 2:13-14). (3)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이 같은 계시로 그 뜻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다(참고, 히 1:1).⁴⁾ (4)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그 분의 뜻이었다고 고백한다. 이것이 고백서가 지적하는 성경이 기록된 이유이다. (5) 또한 성경의 필요성은 '진리를 보다 잘 보존시키며, 전파케 하며, 더 확실하게 세워서 진리 반대 운동⁵⁾을 막아 교회에 구원의 위안을 주시려는 것'에 있다고 한다(참고, 잠 22:19-21; 눅 1:3-4; 롬 15:4; 마 4:4, 7, 10; 사 8:19-20). 더 나은 진리의 수호, 전파, 굳게 세움, 그리고 교회의 위로⁶⁾를 위해 전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매우 필요한('most necessary') 이유가 된다(참고, 딤후 3:15; 벧후 1:19).⁷⁾ (6) 마지막으로 고백서는 예전에 주어졌던 특

4) 이와 관련하여 대요리 문답 제 2항에는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충족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계시한다.' 라고 되어 있다.

5) 박윤선 박사의 '진리 반대 운동'은 영어원문에는 'against the corruption of the flesh, and the malice of Satan and of the world'로 박사는 그 내용을 의역해서 소개했고 다만 문장끝에 괄호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해 놓았다. '진리 반대 운동이란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육체의 부패성과 진리를 항거하는 사단과 세상의 악한 공작 등이다'. 박윤선역, *op. cit.*, p. 12.

6) 박윤선 박사는 원문에 'and comfort of the Church'를 '교회에 구원의 위안을 주시려는 것'으로 의역했다. 본래 '구원'이라는 말이 없으나 본문의 내용을 좀더 분명히 이해시키려는 역자의 의도로 첨가된 것이다. *Ibid.*

7) 박윤선 박사는 '이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면서 특별 계시의 방법이 성경 외에 정지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번역 자체는 조금 이론이 있을 수 있겠다. Smith가 소개한 원문에는 이 부분이 앞의 진리 수호 등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다음 원문의 내용을 ': '와 ': '에 유념해서 살펴보라. ': 'and afterwards, for the better preserving and propagating of the truth, and the malice of Satan and of the world, to commit the same wholly unto writing: which maketh the Holy Scripture to be most necessary: those former ways of God's revealing His will unto His people being now ceased.' Smith, *op. cit.*, p. 11.

별 계시의 방법이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⁸⁾) 이제는 정지되었다고 선언한다(참고, 히 1:1-2).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중요한 것이다.

위의 부분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모두 주셨는데, 이 중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특별 계시는 기록된 성경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진리의 수호와 전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록과 함께 특별 계시는 정지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반틸(Cornelius Van Til)은 권위 있는 계시로서의 성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사람에 대해 절대적 권위의 주장을 가지고서 와야 함을 발견하게 된다.'⁹⁾라고 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가 없이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형룡 박사도 '권위 있는 계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권위 없는 계시는 필요하지 아니하다'¹⁰⁾고 한 바 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 즉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은 사람의 구원과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필요했고, 특히 그 계시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이 시대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한 데에 고백서의 가치가 있다. 구원의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각시켰을 뿐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또는 성경과 동떨어진 계시의 주장이나 강조로 교회와 성도가 미혹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미혹하게 하는 영의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에 근거한 영의 분별은 이 시

8) 박윤선 박사께서 괄호로 넣어 추가한 부분이다. 상당히 적절한 해설이 아닐 수 없다. 박윤선역, *op. cit*

9) Cornelius Van Til, 이승구역 [개혁주의 신학서론],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 224.

10) 박형룡, 『교의신학서론』,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p. 282.

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은 진리의 확산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만, 진리의 수호와 이를 견고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도 결정적인 기능을 감당한다. 이와 관련된 부분이 고백서에 적절히 드러나 있다.

II. 성경의 범위와 영감성

고백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범위를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단정지으면서 그 서책들의 이름을 제 2항에 명기(明記)하였다. 그 이상의 외경 또는 위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와 함께 이 모든 책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삶의 법칙'이라 하였다(참고, 눅 16:29, 31; 엡 2:20; 계 22:18-19; 딤후 3:16).¹¹⁾ 66권의 성경에 대해 그 영감성과 함께 신앙과 삶의 법칙(기준)으로서의 정경성(canoncity)이 강조된 것이다.

더 나아가, 제 2항에 명기됐던 66권 그외의 것은 '가경'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정경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제 3항에서 보다 분명히 하였다. 그것들은 사람의 작품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도 없고 사용될 수도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참고, 눅 24:27, 44; 롬 3:2; 벧후 1:21).¹²⁾

11) 박운선 박사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적인'과 '유일한'이란 말을 덧붙여 번역하였다. Smith의 영문과 박운선 박사의 번역을 비교하라. 'All which are given by inspiration of God to be the rule of faith and life,' Smith, *op. cit.*: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주신 것이니,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박운선역, *op. cit.* 여기서 '유일한 법칙'이라는 표현은 대요리문답의 제 3항의 표현을 발췌한 것일 수 있다.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 'the only rule of faith and obedience'. Smith, *op. cit.* 소요리 문답 제 2항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방법을 지시해주는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했다. *Ibid.*

성경의 범위를 이처럼 명료하게 설정한 것은 하나님의 책과 사람의 책을 분명히 구분하려는 신앙적 의지 때문이다. 영감된 성경과 영감되지 않은 책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다. 이것이 바른 교회의 바른 고백이다.

그런데 66권의 정경이 성경이 된 것은 사람들의 회의의 결정이나 교회의 승인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권이 소유한 신적 권위를 후대에 교회들이 동의한 것이다. 그것은 이 성서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감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¹³⁾ 즉 성경 각 권의 영감성이 그 책을 하나의 정경으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 합쳐져 전체적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백서가 성경(정경)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영감적 특성을 함께 명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영감설과 관련하여 신앙적 개혁주의는 세가지 영감설, 즉 만전 영감설(plenary inspiration), 축자 영감설(verbal inspiration), 유기적 영감설(organic inspiration)을 강조한다.¹⁴⁾ 만전 영감설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성서는 다른 성서 보다 덜 영감된 그런 것이 아니다. 축자 영감설은 영감되지 않은 어구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부분이 성경에 담겨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 어구의 선택과 배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다.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과 인간 저자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성경이 기

12) 예컨대, 베드로의 이름으로 등장했던 책들은 베드로 복음서, 베드로 행전, 베드로 계시록, 베드로의 심판, 베드로의 설교, 야고보에게 쓴 베드로 편지, 빌립에게 쓴 베드로 편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은 베드로의 실제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참고하라, F. F. Bruce, *The Canon of Scripture*, IVP, 1988, p 259.

13) Meredith G. Kline, 김의원역, 『성경의 권위의 구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p. 21.

14) 신복윤 교수의 '성경의 영감과 무오', 『신학정론』 1집, 1983.3, pp. 49-71을 참고하라. 또한 본인의 글, '영감된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성경과 개혁주의 해석학적 과제', 『신학지남』 2002.여름, pp. 113-114, 123-128을 보라.

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저자와 인간 저자를 가진다. 이 세 영감설은 고백서에 드러난 영감 선언을 후대의 신학자들이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영감으로 인해 성경이 고유의 권위를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였다고 벌코프(L. Berkhorf)는 강조했다.¹⁵⁾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심지어 급진주의적 성향을 보인 이들조차도 성경의 신적인 기원과 그 무오적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대한 전문성 있는 연구 결과를 낸 조지(T. George)의 견해이기도 하다.¹⁶⁾

벌코프에 의하면,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권위로써 인간에게 말씀하는 것'이다.¹⁷⁾ 그런 강조는 그대로 스파익맨(G. J. Spykman)의 글에도 나타난다. 즉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성경은 모든 부분에 걸쳐 영감되었기 때문에 무오한(infallible), 그리고 권위 있는(authoritative)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¹⁸⁾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신다는 점은 그 성경이 영감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또 이런 점은 바로 성경의 무오성과 밀접히 연계되고 더 나아가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직결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사상이 종교개혁자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성경적 개혁주의자들의 공통된 성경관이었던 것이다. 이 중 그 어느 하나도 약화될 수 없는, 그리고 간과되어선 안되는 성경적 사상인 것이다.

15) Louis Berkhorf, 신복윤역, [기독교 신학개론], 성광문화사, 1974, p. 54.

16) Timothy George, *Theology of the Reformers*, Broadman Press, 1988, p. 315.

17) Berkhorf, *op. cit.*

18) Gordon, J. Spykman, *Reformational Theology: A New Paradigm for Doing Dogmatics*, Eerdmans, 1992, p. 123.



Ⅲ. 성경의 권위

고백서의 제 4항과 제 5항은 성경의 권위를 다루고 있다. 제 4항은 이 권위에 대해 네가지를 지적한다.¹⁹⁾ (1) 성경의 권위로 인해 그 성경을 믿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그 성경의 권위는 사람의 증언이나 교회의 증언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그 권위는 전적으로 저자이신 하나님(그 자신 진리이신)으로 비롯된다는 것이다(참고, 뱌후 1:21; 답후 3:16; 요일 5:9; 살전 2:13). (4)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참고, 답후 3:16-17).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두가지로 말해질 수 있다. 첫째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므로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으로 권위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는 그 권위로 인해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져야 하고 복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위의 기원(저자 하나님으로부터)과 그 권위의 수납(우리 인간으로부터)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성경적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러므로 신적 권위를 가진다는 이러한 사실은 너무도 명확한 것이었다. 바빙크(H. Bavinck)가 성경은 하나님을 저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신적, 그리고 절대적 권위를 가졌다고 한 말²⁰⁾은 성경의 신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말이다. 워필드(B. B. Warfield) 역시 성경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신뢰할만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²¹⁾ 성경의 영감 교리에 굳게 섰던 보수주의 수

19) 이 부분의 내용은 본인의 번역에 근거한 것으로 박윤석 박사의 것과 표현이 다소간 다를 것이다.

20) Herman Bavinck, 김역규역, 『개혁주의 교의학』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p. 593.

21) Benjamin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Samuel G. Craig (ed.), Marshall Morgan & Scott, p. 115.



호자 반틸도 성경을 신적인 책(Divine book)으로 규정한다. 성경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이 사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 증언된 사실이라는 것이다.²²⁾

고백서의 제 5항²³⁾은 (1) 성경의 고결성과 존엄성에 대한 교회의 증언²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참고, 담전 3:15).²⁵⁾ (2) 두번째 강조는 성경의 자체의 증거에 대한 것이다. 고백서는 '진리의 천적(天的)인 성격, 교훈의 능력성, 문체의 장엄성,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한 전체의 통일성,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걸, 기타 많은 진리의 탁월성과 그 전체적 완전성'²⁶⁾이 있다고 전제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보다 더 비중을 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3) 그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이다(참고, 요일 2:20, 27; 요 16:13-14; 고전 2:10-12; 사 59:21). 말씀에 의해,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 속에 증거를 주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로부터 무오한 진리('infallible truth')와 신적인 권위('divine authority')에 대한 확실한 설득과 확신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성령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비중 있는 증거로 뽑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성경 안의 많은 특별한 부분들은 그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것일 수는 있다.²⁷⁾ 그러나 그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2) Cornelius Van Til, *In Defense of the Faith, v.1: The Doctrine of Scripture*, den Dulk Christian Foundation, 1967, pp. 58-59.

23) 고백서의 제 5항에 해당되는 대요리 문답은 성경의 탁월성과 성경에 대한 성령의 내적 증거를 다루고 있는 제 4항이다.

24) 박윤선 박사는 'the testimony of the Church'를 '교회의 논증'이라 하였다. 본인은 '교회의 증언'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박윤선역, *op. cit.*, p. 13.

25) 'may be'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We may be moved and induced by the testimony of the church to an high and reverend esteem of the Holy Scripture.' Smith, *op. cit.*, p. 13.

26) 박윤선역, *op. cit.*, pp. 13-14.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교회의 증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이에 크게 의지하지는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성경의 권위와 관련해서 성령의 내적 증거를 중시하는 견해 역시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의 개혁주의자들을 통해 꾸준히 개선되어 왔던 부분이다.²⁸⁾ 칼빈 자신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중시했다.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²⁹⁾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신적인 명령을 신실히 증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야만 한다고 했다.³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이는 우리가 그 말씀의 진실성과 그 신적인 가치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전에 작성된 1561년의 벨직 신앙고백(Belgic Confession) 제 5항 중에도 보여진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신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하셨던 성령께서 성경의 진

27) 성경의 통일성, 적응성, 우월한 윤리체계 등과 관련해서는 박형룡 박사의 [교의신학 서론], pp. 242-246을 참조하라.

28) 물론 이 말은 성경 자체의 증거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Wayne A. Grudem의 'Scripture's Self-Attestation and the Problem of Formulating a Doctrine of Scripture', in Carson and Woodbridge (eds.), *Scripture and Truth*, Baker Book House, 1992, pp. 15-59를 참조하라.

29)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1.7.4.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하라. Jack B Rogers,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n Donald K McKim (ed), *Major Themes in the Reformed Tradition*, Eerdmans, 1992, p. 55; John M Frame, 'The Spirit and the Scriptures', in D A Carson & John D Woodbridge (eds.), *Hermeneutics, Authority and Canon*, IVP, 1986, p. 220.

30) Calvin, *op. cit.*



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설득하도록 임재하셔야 한다.³¹⁾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즉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칼빈은 그래서 불신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라 했다. 믿음으로만이 알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²⁾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은 학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어떤 기술이나 또는 고리적인 전제를 통해 얻어지는 그 어떤 통찰력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물이라는 죠지의 견해³³⁾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다.

고백서의 제 5항은 그 앞의 4항에서 강조한 저자이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주어진 성경의 권위 이슈와 합쳐진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신 하나님과 그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시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 자체를 통하여 권위를 갖는다.³⁴⁾

물론 그렇다고 성경 내용의 통일성, 완전성, 탁월성 등이 무시되어선 안된다. 그것이 고백서의 또 다른 언급이다. 이와 함께 사람과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마땅히 받고, 믿고, 또한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1) George, *op. cit.*, p. 128. 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조항은 여러 신앙고백서에 발견된다. 예컨대, 네델란드 고백서(The Netherlands Confession) 제 5항에도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 우리 마음에 증거를 주신다.' 고 했다.

32) Calvin, *op. cit.*, 1.8.13.

33) George, *op. cit.*, p. 197.

34) Bavinck, *op. cit.*, p. 599. 바빙크는 이것을 성경의 '自體可信性' (*autopistos*)라 했다. *Ibid.*, p. 592. 박형룡 박사도 이에 대해 말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대 절대적인 권위를 그 자체에 지닐 것은 확실하다' 고 했다. 박형룡, *op. cit.*, p. 282.

IV. 성경의 역할

성경의 역할, 즉 구원의 길 제시와 신자의 생활의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가치에 대해 담고 있는 항목은 제 6항과 7항 그리고 제 10항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법칙’인 점은 제 2항에서 언급된 바 있다. 제 6항은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다.³⁵⁾ (1) 즉,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진리)’³⁶⁾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2) 그런 진리와 교훈이 명백하게 기록되었거나 혹은 성경에서 적절히 추론하여 끌어내어질 수 있다고 했다.³⁷⁾ (3) 반면에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유전 등으로 더 추가될 수는 없다고 했다(참고, 딤후 3:15-17; 갈 1:8-9; 딤후 2:2). 갈 1:8 등에 의거해서 ‘다른 복음’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4) 그와 함께 고백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참고, 요 6:45; 고전 2:9-12).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³⁸⁾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we acknowledge’)이다.

제 6항에서 더 부연하고 있는 부분은 (5) 교회의 예배, 행정 등 어떤 행사나 일반적인 사항인데 그것들은 일반 이성의 빛(‘the light of nature’)이나 크리스찬적인 분별(‘Christian prudence’)에 비추어 처

35) 하나님에 대해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대요리 문답 5항과 소요리 문답 3항에서 함께 강조한다.

36) *Ibid.*, p. 14.

37) ‘is either expressly set down in Scripture, or by good and necessary consequence may be deduced from Scripture.’ Smith, *op. cit.*, p. 14.

38) 이 부분은 ‘to be necessary for the saving understanding of such things as are revealed in the Word.’ (Smith, p. 14)인데 박운선 박사는 ‘우리가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받는 데 효과있도록 깨달으려면’ 이라고 번역을 했다. 박운선역, *op. cit.* ‘saving understanding’ 부분을 의역한 것이다.



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참고, 고전 11:13-14; 14:26, 40). 물론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 법칙에 근거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신앙과 삶의 법칙이 된다. 반면에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판단은 말씀의 원리에 근거하되 사람에게 주신 이성과 신앙적 분별력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직접적인 적용과 간접적인 적용 모두를 적시한 것이다.

제 7항은 교훈(진리)의 명백성(plainness)과 관련된 것이다. 고백서는 여기에서 두가지와 연계해서 분류했다. 하나는 '우리가 믿고 지켜야 구원의 도리'와 또 하나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들이다. 전자는 분명하고 충분히 제시되었다. 반면에 후자는 그 명백성이 전자와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전자의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은 모두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참고, 시 119:105, 130; 롬 1:16; 고전 1:18, 21; 벧후 3:16).

고백서의 마지막 항목인 제 10항도 성경의 역할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특별히 마지막 항목이란 점에서 고백서는 '최고의 심판자'('the supreme judge')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the Holy Spirit speaking in the Scripture')을 지목한다. 그 성령은 성경의 영감과 그 권위의 증언, 그리고 내적 조명에 관여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된다는 것이다(참고, 행 28:25; 마 22:29, 31; 엡 2:20). 그것이 종교적 모든 논쟁, 모든 회의의 결정사항, 예전 저자들의 의견들, 사람의 교리들, 사적인 영들을 판별하는 일에 있어 성경으로 말씀하는 성령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법도이자, 신자와 교회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자의 신앙과 삶



의 법칙을 제시하기 위해 성경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 다만, 성경에 분명하게 거론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의 일반적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신앙으로 처리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성경이 진정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고백적 사실이 훼손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에 근거한다. 특히 성경이 모든 일의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제 10항)이 고백서에 부각되었다.

V. 성경의 보존과 해석

고백서는 제 8항에서 성경의 보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전히 보존되었기 때문에 가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다(참고, 마 5:18). (2) 그러므로 모든 신앙(종교)적 논쟁에 있어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참고, 사 8:20; 행 15:15; 요 5:39, 46). (3) 그러나 성경 원어가 모든 이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모든 민족의 보통 언어('vulgar language')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했다(참고, 고전 14:6, 9, 11-12, 24, 27-28). (4) 그럼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성령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참고, 골 3:16; 롬 15:4).

이 부분을 요약하면, 성경의 보존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적절한 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이 된다. 그리하여 성경이 모든 이들을 위한 성경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 9항은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참고, 벧후 1:20-21; 행 15:15-16). 어떤 구절의 진실된 그리고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

에서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성경의 연계성과 통일성에 중점을 두는 이런 해석법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이 성경의 저자이심을 전제할 때에야 취해진다. 보수주의 학계에 성경의 통일성이 그 다양성 보다 더 강조되는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다양성이 무시될 필요는 없다. 다양성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특징이 되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통일성을 희생하고 다양성이 강조되거나, 다양성의 이해가 그 내용들간의 대립(또는 모순)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1648년 경에 완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후대에 성경 이해에 극심한 폐해를 준 역사비평학의 도래를 예견하고 제 9항을 고백서에 삽입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 항목이 무신론적 비평적 시각에 근거한.³⁹⁾ 성경에 대한 해석학적 이탈을 일정 부분 차단하는 신조적 역할을 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고백서의 제 8항과 9항은 개혁주의 해석학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다. 해석학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핵심적인 해석학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제 8항의 성경의 보존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해석학계에서 원문(original text)의 계통도 연구를 통해 어떤 사본이 보다 정확하고 원문에 가까운 텍스트인지를 분간하는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의 영역이다. 이 같은 연구에서 영감론자와 비영감론자의 차이는 사본간의 어떤 차이(變異, variants)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통계적 이해와 계통도 구분에 대한 연구 결과의 차이라기 보다는 이들 변이를 어떤 시각에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즉, 보수주의자는 사본간의 차이

39) Gerhard Maier는 역사 비평학이 회의주의와 의심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고는 점을 지적했다. G. Maier, *Biblical Hermeneutics*, Crossway Books, 1994, pp. 281-284. 懷疑. 즉 불신앙에 근거한 해석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성경 해체적인 점은 당연하다.

는 대체로 경미한 것임에 주목한다. 특히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나 신앙적 교리나 본문의 중심된 교훈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변이는 없는 것에 주목한다. 반면에 비평주의자들은 그 차이를 통해 원문이 보존되어오지 않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원문 보존의 훼손 또는 그 본문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에 관심을 둔다.

그러므로 성경의 보존에 대해 강조하는 고백서의 입장은 오늘날의 성경 영감론자(보수주의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또한 제 9장에서 강조하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법에 대한 이슈 역시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경계를 가르는 선언적 역할을 한다. 전통적 복음주의자들이 이 입장에서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⁴⁰⁾ 그것은 이들이 성경 전체의 한 분 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비영감설 지지자와 비평론자들은 그런 점을 증시하지 않는다.

물론 개혁주의 해석 방법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한 가지 방법에만 제한될 필요는 없다. 그 외에도 강조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다. 전통적인 역사-문법 방식도 그것만을 강조하진 않는다. 또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방식 자체에도 그 안에 여러가지 세부적인 해석 방법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구약을 신약에 비취 해석하는 방식, 신약 내용을 구약의 데이터로 해석하는 방식, 또 어떤 부분을 이해할 때 신약 내에 다른 책들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는 방식, 또한 공관 복음서의 상호 연계성 안에서 해석하는 방식,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의 빛(전제) 아래 해석하는 방식, 바울 서신에 속한 책을 바울 서신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방식,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요한문헌 전체의 빛 아래 해석하는 방식, 각 권의 세부적 구절을 그 권 안에 다른 구절들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는 방식, 특정 어구를 어구 상호적인 관계

40) 박윤선 박사의 '계시의존사색'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방식이다. 권성수, '박윤선 박사의 성경해석학',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5, p. 206.

에 의해 해석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한, 두 가지 방식만 이 방법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식을 아예 도외시하거나 반대적인 이론은 그 바른 성경관의 소지 여부에 대해 의심 받을 수 있다. 즉 어떤 특정 본문을 다룰 때마다 외부적 자료에 의한 것으로 주로 이해한다든지(종교사학파의 경우처럼), 성경의 다른 요소들과는 구별된 독립된 세계를 가지는 독자적인 문학 작품이라는 식으로 간주한다든지(초기의 문학비평적 전제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건 바른 성경관이 아닌 것이다.

결 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특히 한국 장로교)의 성경적, 신학적 입장을 대변한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믿는가?’ 할 때, 한국의 개혁교회는 그 대표적인 신앙고백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시해왔다. 이 고백서는 현재 우리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신앙 기초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동일 교단, 교회의 신앙이 서로 일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성경에 대한 바른 고백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곧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도적 증거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능하지 않다는 바빙크의 말⁴¹⁾과 같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 우리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장로교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측)의 총신대학교가 그 신앙고백서 안에 제 1항으로 ‘우리는 신구

41) Bavinck, *op. cit.*, p. 559.



약 성경이 영감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다' 라고 지적한 것이나 제 10항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와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 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⁴²⁾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교회 전문 사역자(특히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총신대학교는 성경에 대한 분명한 개혁주의적 입장을 제일 첫번째 항목(제 1항)과 가장 마지막 항목(제 10항)에 담아 이를 교육의 신앙적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하는 교수나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모두 성경의 영감성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신앙적, 신학적 교수-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은 확신한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신적 진리의 확신이 없는 말씀(설교)이 그 선포의 영향과 능력을 잃듯이,⁴³⁾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신적 진리에 굳게 서지 않은 신학 교육은 그 신적 교육의 효과를 잃게 될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이 말씀, 영감된 성경에 굳게 선 신학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42) 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요람 2000-2001], p. 8.

43) 이 말은 Bavinck의 말이다. Bavinck, *op. cit.*, pp. 595-560. Ribberbos도 비슷한 말을 했다. '성경의 권위는 모든 성경적 설교와 교리의 위대한 전제이다.' Herman Ridderbos, *Studies in Scripture and Its Authority*, Eerdmans, 1978, p. 20.



< 참고문헌 >

- 권성수, '박윤선 박사의 성경해석학',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 김상훈, '영감된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성경과 개혁주의 해석학적 과제', [신학지남] 2002. 여름.
- 박윤선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영음사, 1989.
- 박형룡. [교의신학서론],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 신복윤, '성경의 영감과 무오', [신학정론] 1집, 1983.3.
- 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요람 2000-2001].
- Bavinck, Herman, 김역규역, [개혁주의 교의학]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p. 593.
- Berkhof, Louis, 신복윤역, [기독교 신학개론], 성광문화사, 1974.
- Bruce, F. F., *The Canon of Scripture*, IVP, 1988. p.259.
- Calvin, Joh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 Frame, John M., 'The Spirit and the Scriptures', in D A Carson & John D Woodbndge (eds.), *Henneneutics, Authority and Canon*, IVP, 1986.
- George, Timothy, *Theology of the Reformers*, Broadman Press, 1988.
- Grudem, Wayne A., 'Scripture's Self-Attestation and the Problem of Formulating a Doctrne of Scripture', in Carson and Woodbndge (eds.), *Scripture and Truth*, Baker Book House, 1992.
- Kline, Meredith G., 김의원역, [성경의 권위의 구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 Maier, Gerhard, *Biblical Hermeneutics*, Crossway Books, 1994.
- Ridderbos, Herman, *Studies in Scnpture and Its Authority*, Eerdmans, 1978.
- Rogers, Jack B., 'The Authon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n Donald K Mckim (ed), *Major Themes in the Reformed Tradition*, Eerdmans, 1992.
- Smith, Morton H., *Harmony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and Catechisms*, Greenville Seminary Press, 1993.
- Spykman, Gordon, J., *Reformational Theology: A New Paradigm for Doing Dogmatics*, Eerdmans, 1992.
- Van Til, Cornelius. 이승구역 [개혁주의 신학서론],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_____ Cornelius, *In Defense of the Faith, v.1: The doctrine of Scripture*, den Dulk Christian Foundation, 1967.



178 총신대 논총 / 김상훈

Warfield, Benjamin B.,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Samuel G Craig (ed.), Marshall Morgan & Scott, 1948.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